

고창읍서 천연기념물 수달 발견

고창군 고창읍을 가로지르는 고창천에서 수달무리가 목격돼 화제가 되고 있다.

그동안 고창읍 석정온천 일대와 운곡습지 등 사람의 발길이 뜸한 지역에서 간혹 수달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.

수달을 처음 발견해 이를 촬영한 이는 이 지역에서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 진미순(35)씨.

진씨는 아이들과 함께 고창천 산책을 자주 나서는 편인데 보름전쯤 고창전통시장 앞 하천에서 수달을 목격한 것이다.

수달찾기에 나선지 10여일만인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진씨는 어둠이 내린 하천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수달을 발견해 남편과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생생한 야생수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됐다.

진씨는 “시골 한적한 곳에서나 볼



고창천에서 발견한 수달. 진미순씨 제공

수 있었던 수달을 도심 한복판에서 볼 수 있어 신기했다”며 “고창이 그만큼 청정한 자연생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산 증거가 아닌가 싶다”고 전했다. 한편, 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, 2012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.

고창=남궁경중 기자